

HARVEST TIMES

2025년 10월 1일 제 13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HARVEST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2025년 9월 Vol. 12

CONTENTS

- 09 도덕, 윤리, 기독교 윤리, 성품, 품성의 차이점과 기독교적 의미
 - 07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 캠퍼스 학장 박춘숙 선교사
 - 15 신학대학원 학위 과정 안내
 - 18 문화예술대학원 학위 과정 안내
 - 21 선교대학원 학위 과정 안내
 - 23 헤른후르트 선교 공동체
 - 30 가족성장 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 33 학위과정 운영 규정
 - 40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
 - 48 2025년 사역 소식
 - 49 이슬람의 무타와 기독교의 결혼
 - 55. 선교사 연금 제도 안내
 - 64 욕 기푸르
 - 66 한가위를 맞으며
 - 24 사)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소개
-

도덕, 윤리, 기독교 윤리, 성품, 품성의 차이점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대표
하베스트 대학교 총장
이성상 태국 선교사



도덕, 윤리, 기독교 윤리, 성품, 품성의 차이점과 기독교적 의미

신학교 다닐 적에 신학생들이 모여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제일 못하더라”

품성계발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 권의 책을 펴낸 지도 30년이 되어 갑니다. 품성계발을 주제로 강의하고 책을 펴내는 나 자신은 얼마나 성화 되었나? 돌이켜 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데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도덕, 윤리, 그리고 기독교 윤리, 성품, 품성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고,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도덕(道德, Morality)

도덕은 개인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행동 기준입니다. 주로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기반하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2. 윤리(倫理, Ethics)

윤리는 도덕보다 한층 더 체계적이며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론적으로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품성계발 세미나 (하베스트 대학교 이성상 박사)

3.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 가치는 사랑, 희생, 정의, 거룩함 등입니다.

4. 성품(性品, Nature)

성품은 개인의 내면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성품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과는 구별되며, 영적 변화와 관련됩니다.



5. 품성(品性, Character)

품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등)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며,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의 열매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적 기준과 철학적 탐구라면, 기독교 윤리와 성품, 품성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기초한 삶의 변화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는 영성, 품성, 전문성을 갖어 드리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일시 및 장소

일대일 강의로 학생이 원하는 시간
줌(ZOOM)을 통해 어디에서나

발표자

하베스트 대학교 이성상 교수

세미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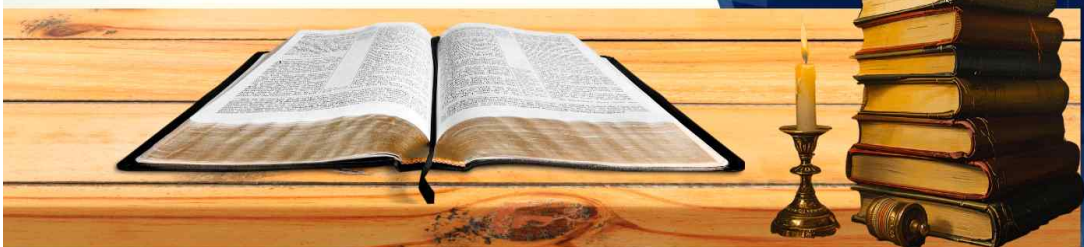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위 논문을
쉽고 빠르게 쓰는 방법

등록 방법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하세요!



AI
논문
작성
활용
하기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 캠퍼스

한국 태안 캠퍼스
학장 박춘숙 선교사



가을밤이 깊어만 갑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나가니 사방에서 들려오는 풀벌레의 합창
소리가 온 사방에 가득 차 울려 옵니다.

한가위가 다가오니 달은 하루하루 빛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 가운데 그때 그펜션의 밤은 고즈넉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 26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안면도에 온 지 8월
말로 딱 2년이 되었습니다.

26년 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창
고같은 공항을 통과하여 설레는 맘, 두
려운 맘으로 두딸을 데리고 도착했던
넓디 넓은 아파트 4층에서 선교사의 삶
을 시작한 후부터 다시 카자흐스탄 알
마티에 와서 26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
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주베키스탄에서 학생 사역을 하며 만났던 대학교 1년생들이 이제는 40살이 다 넘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목사, 간사, 사모가 되기도 하고, 현지인 목사들 모임에 노회장도 하고,

현지 신학교에서 교수도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영화를 찍겠다고 비전을 이야기 했던 형제는 세월이 흘러 실제로 한국에서도 영화를 상연한 최초로 중아아시아선 유명한 고려인 영화 감독이 된 형제도 있습니다. 카작에서는 교회개척과 게스트 하우스 사역과 엠케이들의 돌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온 후 둘째 딸이 남아서 텐션 국제학교에

서 미술 교육 선교사를 하면서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 리더 가정을 섬기다 저희 모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현지인 가정교회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돕고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태안군 안면도에서의 펜션지기는 사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졌던 오랜 꿈은 언젠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선교사가 되어서는 선교사 사역이 끝나면 국내에서 저희 모임 후배 간사,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를 하고픈 꿈 꾸었지만 아주 막연해서 과연 가능할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기억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카작에서 10여 년 동안 다른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돕고 어렌지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10여 년 동안 저희 가정과 게스트하우스에는 단기 선교를 위해 오는 분들, 이웃

나라를 가거나 카작 먼 도시를 가기 위해 잠깐 머물다 가는 선교사님 가정, 선교사로 처음 들어와서 방을 구하기 전에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는 선교사들을 계속 섬겼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인 줄 모르고 그저 즐겁고 기쁘게 섬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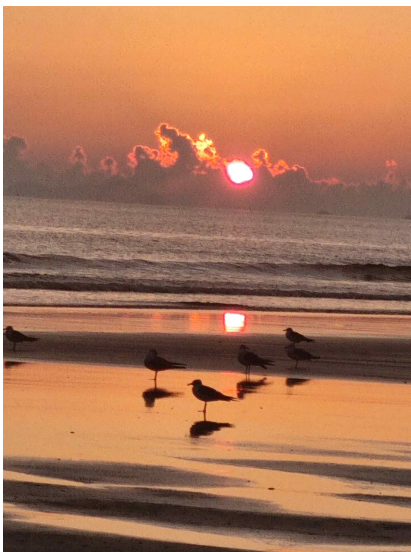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커지고 손님 대접을 편하게 할 힘도 생겼을 때, 갑자기 펜데믹이 왔습니다. 펜데믹으로 시골에서 올라와 학교에 다니기 위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엠케이들이 떠나고, 게스트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쯤에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던 두 자매를 신학교를 졸업하여 현

지인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선교사 시작을 하기 전 방을 구하기 위해 우리 집에 잠깐 머물렀던 시니어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사를 하여서도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안면도에 펜션을 하다 왔는데 안면도에서 함께 그런 사역을 같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그분들의 펜션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다리를 놓으시는 것이니 걸음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정리되었고, 현 지인 지도자를 세웠으니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펜션을 운영하여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의 펜션이 아닌 지금 이 장소로 이끄시고 지난 2년 동안 3가정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시면서 비즈니스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 부부는 2가정을 통하여 많은 비결을 배우도록 이끄셨습니다. 드디어 2025년 9월부터 우리 가정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제가 하베스트 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안면도 그때 그펜션은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캠퍼스로

개교되었고, 이성상 총장님과 많은 교수님과 졸업 동기들이 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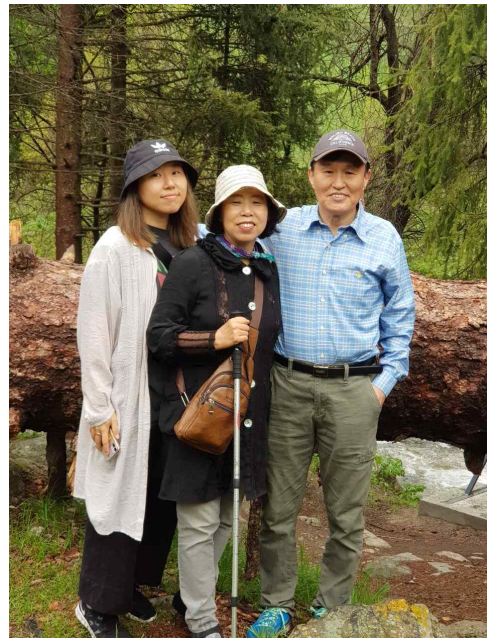


하베스트 대학교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과연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사들과 믿는 자들을 섬기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우리 가정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사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기면서도 한편 교육의 장소, 여러 세미나가 진행되고, 오셔서 성경을 읽으며 다시 제 추천하는 장소가 되기를 위해 우리 가정이 더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넉넉한 섬김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펜션을 잘 운영할 지혜를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쉼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펜션은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잡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펜션입니다.

꽃지 해수욕장, 밧개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등 설 거리 먹거리 장소가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해루질 체험과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가족 (선교사님들과 가족)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주중에 오시면 더욱 조용하게 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엔 **안면도 들꽃축제**와 **국화축제**, **대하 축제**가 진행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캠퍼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08-193

박춘숙 선교사 010 2733 6287, 010 6560 6287



하베스트 대학교

2025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 과정 모집 공고



언제든지 입학하여,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도

| 접수기간

2025.09.05 ~ 10. 15.

| 신청자격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

| 지원 학위 과정 안내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가족성장상담대학원
학사(B.Th.), 문학석사(M.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목회학박사(D.Min.), 선교학박사(D.Miss.),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 선발방법

서류 전형
(선교사님 특별 우대)

| 문의접수

harvest-mission.com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





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in Theology) 및 통합과정

1. 신학석사(Th.M) 졸업 요구학점

- (1) 신학사(B.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 (2) 문학석사(M.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 (3)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

2. 신학전공 철학박사(Ph.D) 과정 학생은 논문 10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전공을 선택하려면 필수과목 이외에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예: 성서학 전공, 조직신학 전공, 교회사 전공, 실천신학 전공 등).

4.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10학점으로 한다.

5. 문학석사(M.A)와 신학석사(Th.M)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의 교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입학요건은 목회학석사(M.Div)나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와 이에 따르는 정규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 10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KR)

당신은 구원받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 윤리

Christian Ethic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의 어떠해야 하는가?”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인 삶에 대한
이해의 체계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히 보기



최정훈 박사

전, 한동대학교 교목실장 및 교수
에딘버러대학교 철학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KR)

토라(תורה) 구약 성경의 첫 다섯 책

모세오경

Pentateuch

- 창세기 「בראשית」
- 출애굽기 「שמות」
- 레위기 「ויקרא」
- 민수기 「במדבר」
- 신명기 「דברים」

율법은 1.도덕률법, 2. 사법률법, 3.의식률법으로 나뉜다. 이 중, 도덕률법은 영속성이 있지만, 의식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자세히 보기 →

나주아 박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교무처장



문화예술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36학점

문화예술학 박사(Ph.D in InterCultural Arts) 48학점

석사, 박사 통합 과정

1. 전공필수

교회음악학 (김부식 박사)

문화인류학 (김부식 박사)

문화예술 경영론 (김부식 박사)

캘리그라피 (김부식 박사)

힐링발성법 (정찬혜 박사)

아동문학 (김성구 박사)



2. 전공 선택

작곡법 (김부식 박사)

반주법 (김부식 박사)

기초성악 (김미현 박사)

합창지휘법 (김부식 박사)

시낭송 (남기선 교수)

수묵화 (김부식 박사)

성전꽃꽂이 (이현옥 교수)

시, 수필 강좌 (김부식 교수, 이진영 교수, 김성구 교수, 배인수 교수)

사진학 (정상진 교수)

한국장단(북,장구,뿔과리/사물놀이)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난타(타법과 설계) (김부식 박사)

3. 전공별 논문

1) 음악 전공 음악회

2) 미술 전공 전시회

3) 문학 전공 출판



4. 교양필수 과목 이수

문학석사(M.A)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베스트대문화예술대학원 가을학기 강좌

(일반강좌 및 학위과정 석, 박사 통합과정)

10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11월 27일 종강)

(한국시간 기준, ZOOM 강의)

17시 : 최헌정 교수 / 기초성악 발성법

18시 : 이국병 교수 / 찬송가학

19시 : 김부식 교수 / 캘리그래피 2급과정

20시 : 변영혜 교수 / 성화로 보는 성경

21시 : 홍성례 교수 / 시낭송 2급과정

22시 : 김성구 교수 / 기독교 문학

하베스트 문화예술대학원 2025' 가을학기 강좌



김부식 교수

Midwest문화인류학 박사
하베스트문화예술대학원장

캘리그래피 2급과정



김성구 교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철학 박사
국제문학 대표

기독교 문학



이국병 교수

평택피어선대 철학박사
오사랑교회 담임목사

찬송가학



변영혜 교수

서울대, 대신대 명예철학박사
대신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성화로 보는 성경



최현정 교수

베를린부르크 국립음악원
베아오페라음악예술원 교수

기초성악 발성법



홍성례 교수

성화대 졸업
홍시낭시 대표

시낭송 2급과정

2025. 10. 16.~11. 27. 하베스트 문화예술대학원



선교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선교학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 Miss),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및 통합과정

1. 전공 필수

- * 선교학 개론 (김현진 박사)
- * 선교 신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의 역사 (김현진 박사)
- * 선교 문화인류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적교회론 (김현진 박사)
- * 성령과 선교 (김현진 박사)
- * 공동체와 선교 (김현진 박사)
- * 다문화 선교 (김현진 박사)



2. 전공 선택

- * 전도학 (이성상 박사)
- * 미디어와 선교 (조창식 박사)
- * 디지털 시대 AI와 선교 (안정위 박사)
- * 모라비안 형제단의 세계선교 (유정남 박사)
- * 선 의 경 교 (김규동 박사)

3. 논문 - 석사 과정 6학점, 박사 과정 10학점

4. 교양 필수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의 교양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10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KR)

선교신학

Missi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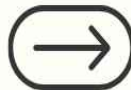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김현진 박사

-전, 평택대학교 선교학 교수

-태안 사림의 선교 공동체 대표

-하베스트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

김현진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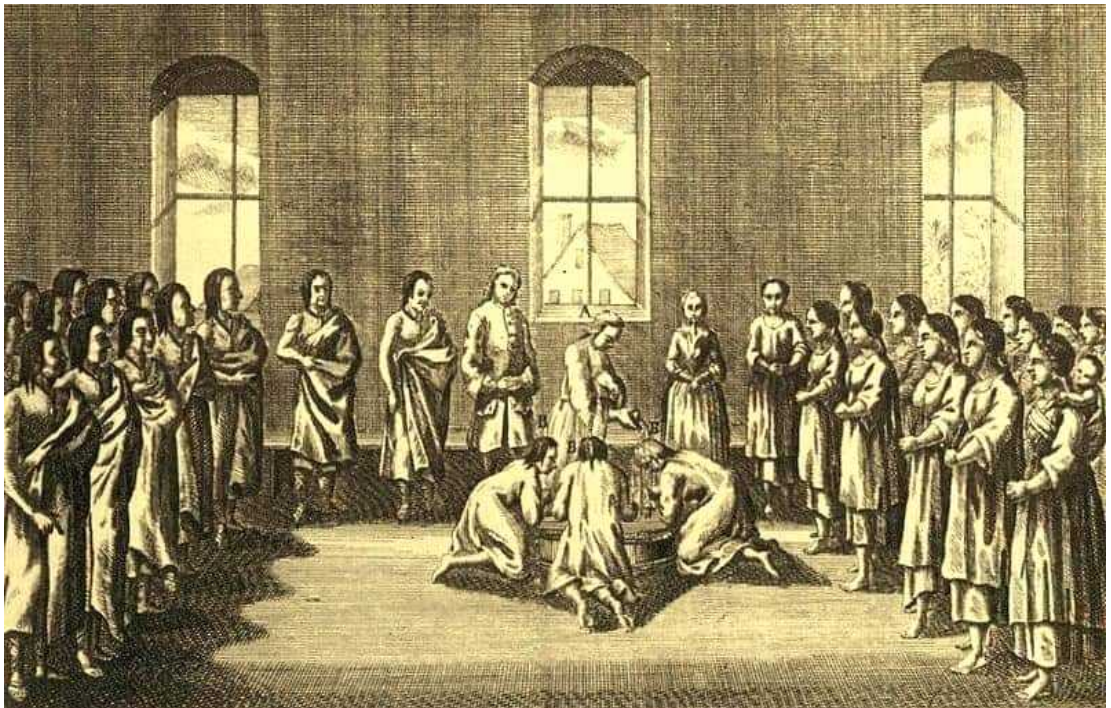
진젠도르프의 헌신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된 헤른후트 공동체는 남미, 북극, 북미, 아프리카 등 오지에 1732년부터 1760년까지 총 226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진젠도르프의 세계선교 비전

헤른후트 공동체의 멤버들은 루터파, 모라비안, 개혁신교, 재세례파, 가톨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에 모라비안들이 세계선교에 헌신하여 대부분 파송되었기에 흔히 "모라비안 선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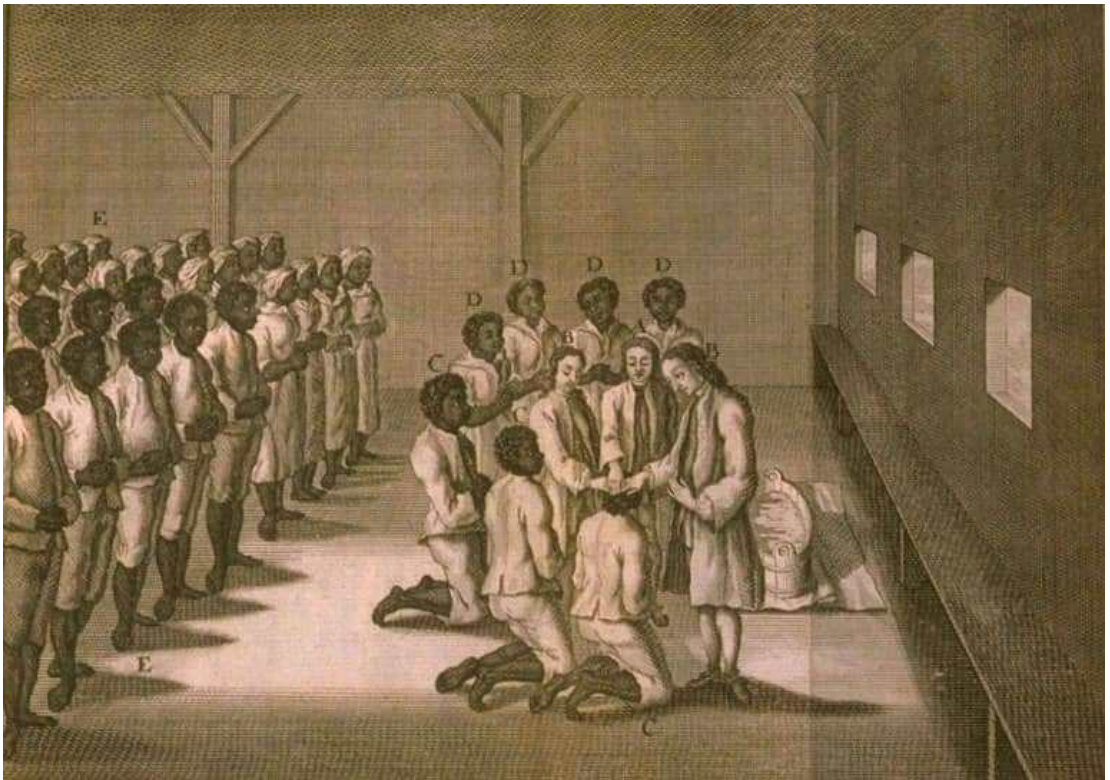
진젠도르프는 1731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머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흑인 노예 안토니 울리히(Anthony Ulrich)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에스키모인을 만났다. 그는 흑인 노예에게서 남미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후에 헤른후트 공동체가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는 계기가 되어 남미의 서인도 제도와 그린란드 (Greenland)의 덴마크령 식민지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사 파송식

당시 그 지역에서 헤른후트 공동체 지부는 52개의 농장에 200명의 멤버들이 공동체로 살면서 함께 사역 하였다.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노예상업 활동이 완화되어 가면서 그것이 선교 사역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다.

1754년에 헤른후트 공동체는 자마йка (Jamaica)의 두 식민 농장을 매입하여 흑인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개진하였다. 좋은 건물들과 인력들이 뒷받침 여건 속에서 선교사들은 감독 제도를 수용 하고 선교훈련 단체와 연결되어 사역하였다. 그러나 백인들이 상업에 의존 하는 구조 가운데서 그들의 선교는 선교와 상업이라는 양면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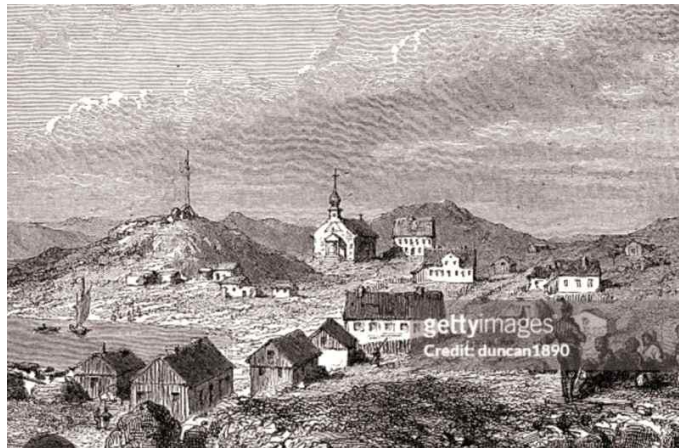
모라비안 선교사에게 세례받는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들

2. 카리브해 지역과 자메이카

1735년에 남미 카리브 지역에 파송된 형제들은 덴마크 귀족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근처의 세인트 크로이(Saint Croix) 섬에 선교하려는 시도는 많은 인명 피해를 당하였다. 18명의 형제들이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다.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의 선교 시도는 풍토병과 열대병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교사역을 일찍 중단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카리브 지역에서 선교는 매년 수세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성공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심을 더 끌지 못하였다.

1754년에 헤른후트 공동체는 자마йка (Jamaica)의 두 식민 농장을 매입하여 흑인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개진하였다. 좋은 건물들과 인력들이 뒷받침 여건 속에서 선교사들은 감독 제도를 수용하고 선교훈련 단체와 연결되어 사역하였다. 그러나 백인들이 상업에 의존하는 구조 가운데서 그들의 선교는 선교와 상업이라는 양면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그린랜드의 모라비안 선교기지

3. 그린랜드

헤른후트 공동체는 남미 카리브 지역에서의 선교활동과 거의 동시에 북극 지역의 그린랜드에서도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1733년 크리스찬 데이비드(Christian David, 1690~1751)와 세 명의 공동체 형제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관청의 도움을 받아 갔으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의 큰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었다.

1736년 공동체 자매들이 도착하면서 그린랜드에서 선교활동은 비로소 정착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유랑하는 에스키모 들의 생활 가운데서 초기의 선교는 매우 힘들었다.



북극 그린랜드에서 복음 전하는 모라비안 선교사

1739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수세자가 나왔으며, 결국 풍성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과 내부적 마찰이 있었지

만 선교 사역은 더욱 확고해졌다. 진젠도르프는 그린란드에서의 선교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린란드 선교사역 5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헤른후트 공동체의 교회 조직을 본 따서 교회를 세웠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선교기지를 개척하였다. 많은 선교사들이 외부 후원이 중단되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모라비안들은 무역업을 통하여 장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지로 떠날 때 후원 없이 배삐만 받고 떠났다. 헤른후트 공동체는 소렌슨 (Sorensen)에게 라브라도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예,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지 신발 한 켤레만 주어진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1700년대에 증기선도 없이 범선을 타고 수 개월에 걸쳐서 오지에 선교사로 갔던 모라비안들의 열정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선교 신학 (Missiology)

10월 16일(목)부터 7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zoom)

선교 신학이 중요한가?

-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합니다.
- 선교를 전략보다 먼저 ‘신학’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 선교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하게 합니다.
- 문화적 충돌 속에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릅니다.
-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로 이해하게 합니다.



김현진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태안 사범의 공동체 대표
전, 평택 대학교 선교학 교수





가족성장 상담 대학원

가족성장 상담학석사 과정 (36학점)

Master of Arts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1. 전공필수과목

10과목 20학점, 아래 15과목

각 2학점 중 10과목 선택 가능

가족치유 7 과정

내적 치유 (오광복/이은경 교수)

역기능가정 치유 (오광복 교수)

우울증과 분노 치유 (오광복 교수)

성격장애 및 인격장애 치유 (오광복 교수)

위기 디브리핑 (위기치유상담) (어진옥 교수)

사람 의존성 치유 (오광복 교수)

거짓된 사고 치유 및 중독 치유 (오광복 교수)



가족성장 5 과정

MBTI와 인간 이해 (이은경 교수)

중년기 변화와 성장 (이은경 교수)

인간관계훈련 (오광복 교수)

대화훈련 (이은경 교수)

향기나는 인격과 관계성장 (오광복 교수)

독서치유 3 과정

독서치유 상담 (오광복/이은경 교수)

독서상담의 실제 (어미선 교수)

독서상담실습 (어미선 교수)



2. 논문 작성

논문지도(2학점)

논문(4학점)

3. 교양필수 과목 (5과목 10학점)

문학석사(M.A)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4. 자격증 과정 (추가과정)

가족성장 상담사

가족치유 상담사

독서치유 상담사



10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KR)

초기 기독교 역사

Ealy Church history

- 교회 역사 특히 고대 아시아로 확장된 기독교 복음 전파 경로와 신행일치적 역할을 탐색합니다. 고대 동방교회의 정체성과 기독교 확장의 3대 플랫폼에 대해 깊이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김규동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제주 캠퍼스 학장
하베스트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과정 운영 규정

하베스트 대학교는 학점 은행제로 운영된다.

- (1)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 (2)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다.

행정비

- (1) 입학금은 5만 원으로 한다
- (2)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등 제반 서류 발급 비용은 2만 원으로 한다.
- (3) 선교지의 학생일 때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이 정한다.

학비

- (1) 1학점당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학생 정원

- (1) 대학원장과 담당 교수의 결정으로 학생 1인 이상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입학 서류 제출처

하베스트 대학교 교무처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입학금

입학금 5만원을 접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위조문서가 발견될 경우 등록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된다.

아울러 학위 증명서가 무효 된다.

등록 절차

1. 1차 서류 접수, 2차 면접 및 심의, 3차 합격 통지서 발송 후 학비를 납부한다.
2. 학번을 부여받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을 신청한다.

강의 진행

1. 모든 강의는 온라인(ZOOM 등)을 기본으로 한다.
2. 집중 세미나/온라인 및 대면 강의를 병행할 수 있다.
3. 사정에 따라 녹화된 영상으로 수업을 대신에 할 수 있다.
4. 현장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수는 교무처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교양필수 과목 선택

- (1) 학위과정에 참여한 학생은 반드시 대학교가 정한 교양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2) 신학사(B.Th) 선교학사(B.A)와 목회학석사(M.Div) 과정의 학생은 10과목(20학점)
- (3) 문학석사(M.A)와 신학석사(Th.M)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
- (4)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

학위 과정 안내

1. 학사과정

- (1) 신학사(Bachelor of Theology, B.Th.)
- (2) 선교학사(Bachelor of Arts in Missiology, B.A.)

2. 석사 학위과정

- (1) 문학석사(Master of Arts, M.A)
 - 선교학 석사 (M. A in Missiology)
 -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 가족성장 상담학 석사 (M.A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 (2)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M.Div)
- (3)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Th.M)

3. 박사 학위과정

- (1) 목회학박사(Doctor of Ministry, D.Min)
- (2) 선교학박사(Doctor of Missiology, D.Miss)
- (3)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Th.D)
- (4) 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Ph.D)



4. 석사, 박사 학위 통합 과정

(1) 목회학박사(Doctor of Ministry, D.Min)

문학석사(M.A) + 목회학 박사(D.Min)

목회학석사(M.Div) + 목회학박사(D.Min)

신학석사(Th.M) + 목회학박사(D.Min)

(2) 선교학박사(Doctor of Missiology, D.Miss)

문학석사(M.A) + 선교학 박사(D.Miss)

목회학석사(M.Div) + 선교학박사(D.Miss)

신학석사(Th.M) + 선교학박사(D.Miss)

(3)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Th.D)

문학석사(M.A) + 신학박사(Th.D)

목회학석사(M.Div) + 신학박사(Th.D)

신학석사(Th.M) + 신학박사(Th.D)

(4) 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Ph.D)

문학석사(M.A) + 철학 박사(Ph.D)

목회학석사(M.Div) + 철학박사(Ph.D)

신학석사(Th.M) + 철학박사(Ph.D)





AROMATHERAPY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지영 지음

향기가 좋은 마음을
시도하는 아로마테라피
그녀가 아로마테라피를
만난 순간 행복이었다



에스
AROMATHERAPY

졸업 이수 요구학점 및 입학 자격 규정

1. 신학사(B.Th) 및 선교학사(B.A in Missiology) 졸업 요구학점 120학점

(1) 목회자나 선교사 5년 이상의 경력자는 1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문학석사(M.A) 졸업 요구학점 36학점

(1) 입학요건: 대학 학위 소지자

3. 목회학석사(M.Div) 졸업 요구학점 100학점

(1) 신학사 및 선교학사 학위 소지자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는 7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4. 신학석사(Th.M) 졸업 요구학점 36학점

(1)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자는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5. 목회학박사(D.Min) 졸업 요구학점 40학점

(1)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자는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신학석사(Th.M) 학위 소지자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신학석사(Th.M) 혹은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소지하고,
목회 경력 5년 이하 인자는 학생은 2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학생은 2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6. 선교학박사(D.Miss) 졸업 요구학점 42학점

- (1) 목회학박사(D.Min) 학위 소지자는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2) 신학석사(Th. M) 학위 소지자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3)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자는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4)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학위 소지자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5)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는 3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7. 신학박사(Th.D) 졸업 요구학점 45학점

- (1) 목회학박사(D.Min) 학위 소지자는 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2) 선교학박사(D.Miss) 학위 소지자는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3) 신학석사(Th. M) 학위 소지자는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4)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자는 4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5)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10학점으로 한다.
- (6) 입학요건: 문학 석사(M.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학위 소지자와 이에 따르는 정규 학위 소지자

8. 철학박사(Ph.D) 졸업 요구학점 48학점

- (1) 목회학박사(D.Min) 선교학박사(D.Miss) 학위 소지자는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2) 신학석사(Th.M) 학위 소지자는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17)



정규동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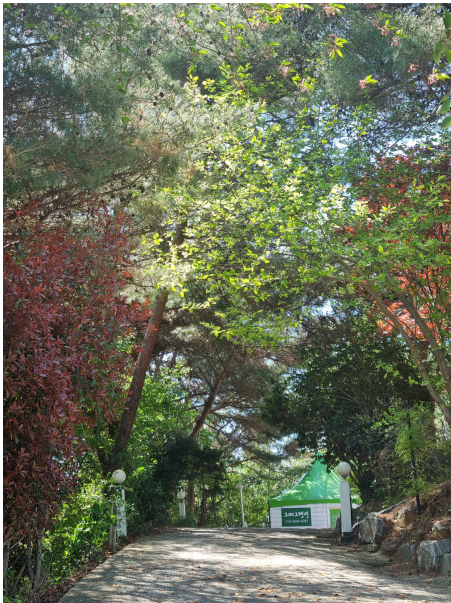
하나님은 절대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때에도 조금씩 밝혀져서 나중에 완전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번이나 넘어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12:2)하리라 하였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 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17:6)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같게’(13:16), ‘못 별 같이’(15:5)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른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가 입덧을 한다든지 배가 불러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2).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알게 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15:4). 이때 ‘사라가 낳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16:3-).



사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9).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고 한꺼번에 말

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하셨습니다(18:10).

이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이요 완전히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라는 임신 기능을 잃은 ‘할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17).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지만, 이 일은 안 될 줄 알았습니다(18:14).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에 따라 사라가 기적으로 잉태하고(21:2), 기적의 아들이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빼놓고는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많은 종들도 주셨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보다도 몇백 배나 더 넓은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고, 잡혀간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롯이

사는 곳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6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주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태어날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아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13년간의 침묵

16장은 86세로 마쳐지고, 17장은 99세로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건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입니다. 13년은 이스마엘이 13살 되는 때였고, 그 당시에는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1). 아브라함이 자신을 충분

히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마디 외에 더이상 과거를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여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열왕이 그에게로 좇아날 것이라 하셨습니다(6).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9-14)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에는 ‘양피를 벤다’고 표현했습니다(11). 하나님은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당시 그 집에 있었던 남자는 다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도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11).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곳에 언약의 표를 세기게 하셨을까요? 밖으로 보이는 손목이나 팔뚝에 해도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13). 이것은 ‘하나님의 해학(wit)’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소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거시기를 꺼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언약의 표시가 있는 이것으로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백세 된 사람이 어찌...’ (17)

아브라함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100살을 바라보는 할배이고, 아내는 곧 90살이 되는 할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이 나오도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욕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입니다(요1:13).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육정을 초월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하

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보았으면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넘치도록 주신 것 100가지를 바라보았다면 행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없는 것이 있지만, 있는 것이 더 많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행복한 자가 됩시다.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 소식을 나눕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하베스트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교육의 장소를 위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1층 예배실, 도서관, 사무실, 세미나실

2층 게스트하우스 - 침대, 에어컨, 식기류 등 각 방을 위해 4백만 원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층 치앙마이 전경이 보이는 연구실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치앙마미 센터를 오픈합니다.

하베스트 가족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고 오셔서 논문도 쓰시고 쉽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조식포함)



선교센터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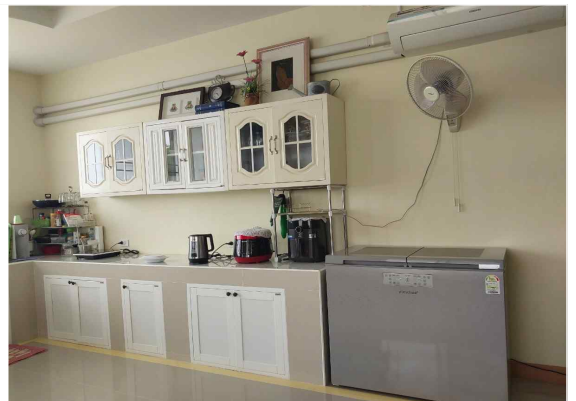
입구에서 본관 진입로



선교센터 정면



4만 여권의 도서가 있는 도서관



2층 게스트하우스

2025년도 하반기 사역 일정

사)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대표 이성상 선교사

- ✓ 7월 9~10일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 캠퍼스 오픈닝
- ✓ 7월 28~8/1일 하베스트 대학교 일본 동경 캠퍼스 오픈닝
- ✓ 8월 16~20일 하베스트 대학교 제주 캠퍼스 오픈닝
- ✓ 9월 22~24일 한가위 말씀 축제 (치앙라이)
- ✓ 10월 20~24일 동남아 선교 지도력 개발 포럼 (7개국)
- ✓ 11월 16~22일 북인도 신학교 교수 컨퍼런스 (20개 신학교)
- ✓ 12월 1일 제26회 주태 한인선교사회 북부지회 총회



이슬람의 ‘무타(Mut'a)’와 기독교의 결혼에 대한 유비



김종일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아신 대학교 교수

이슬람의 시아파에서 인정하는 무타는 꾸란 4장 24절의 “그들(여성)에게서 즐거움을 얻었으면 규정된 보수(마흐르)를 주라”는 구절에 신학적 뿌리를 둔다. ‘무타’라는 단어 자체가 ‘즐거움’ 혹은 ‘향유’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제도는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대가를 조건으로 남녀의 결합을 허용한다.

전쟁이나 여행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의 성적 필요를 해결하

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방지한다는 현실적인 명분도 뒤따른다.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모든 것이 명확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간, 금액, 조건.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 계약은 성립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관계는 미련 없이 해소된다.



그러나, 바로 이 ‘계약’이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결혼’이 가진 숭고한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한다. 기독교의 결혼은 절대 ‘계약(contract)’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

(covenant)’이다. 계약이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필요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언약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한 약속이다. 계약의 기반이 상호 간의 이익이라면, 언약의 기반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이다. 계약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은 설령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맹세이다.

성경은 결혼을 설명하며 단 한 번도 ‘즐거움’이나 ‘유용성’을 일

차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신비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창세기 2:18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결혼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선물이었다.

이어서 2:24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선포하며, 결혼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하나 됨’이라는 신비를



드러낸다. 이 하나 됨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 연합이며,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룩한 언약이다.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2-25) 기독교의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이 땅에 비추는 거울이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는 교회처럼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둘은 함께 거룩의 길을 걸어간다. 여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서약은 이 관계가 유한한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



들리는 계약이 아니라, 영원을 담보한 언약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무타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되지만, 그 의미의 깊이는 다르다. 무타의 자녀가 계약의 ‘결과물’이라면,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언약의 ‘열매’이며, 부모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된다.

무타를 따르는 시아 무슬림들의 공허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은 ‘일회용 사랑’이 아닌 ‘영원한 소속감’을 갈망하는 이들은 힘들어 한다. 기간이 정해진 ‘즐거움’은 결코 한 인격의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히려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언제나 대체

될 수 있는 ‘수단’이었음을 깨닫고 더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모든 관계의 비극이다. 무타는 여성을 성적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한다 해도, 기간과 돈을 정해놓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사용’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결혼관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무타’처럼 대하신다면 어떨까? 우리

의 쓸모가 다하거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계약 기간 만료”를 선언하며 우리를 내치신다면 말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인자함을 계속 베풀어 주었다.”(렘 31:3)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분을 배신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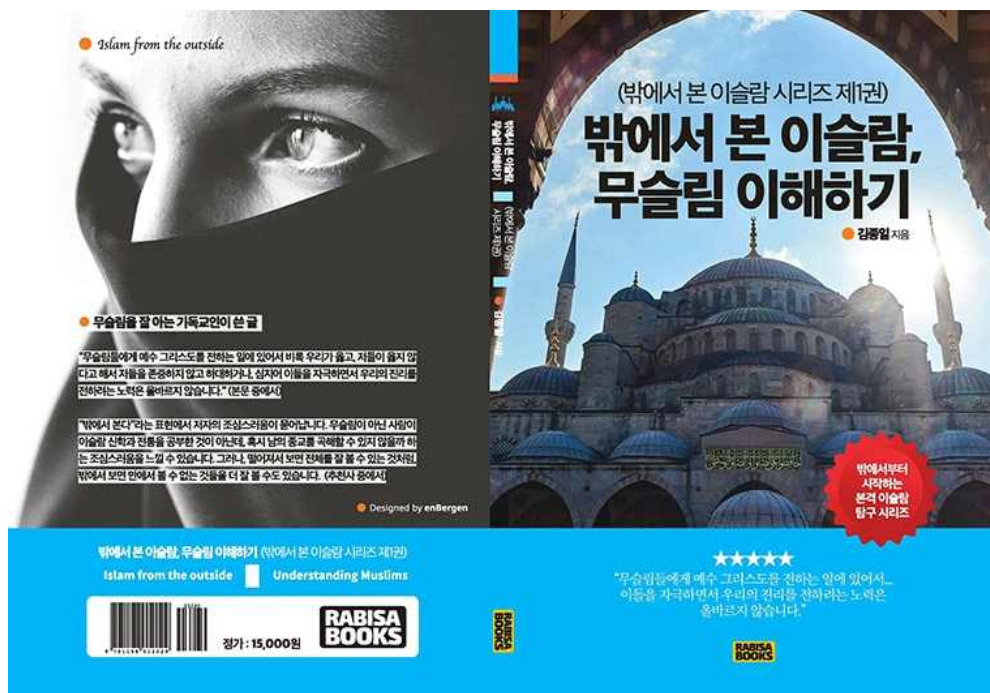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유용성과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기독교의 결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 즉 ‘아가페(Agape)’를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거룩한 훈련장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체득해 나간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무슬림에게 이 말을 건네고 싶다. 인간의 제도와 합리가 만들어낸 ‘계약된 즐거움’은 잠시의 위로를 줄 수 있

을지언정,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울 수는 없다.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찾고, 변치 않는 사랑에 뿌리내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다. 무타가 제하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기독교가 말하는 ‘이상적인 언약’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와 신앙의 본질을 되물게 된다.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서는 -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하시도록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가 완공되어 많은 선교사님이 고향 집, 친정집처럼 활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각 숙소에 에어컨과 침대 등이 구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각 방 500만원 x 숙소 12개
 4. 하베스트 선교사님들에게 연금을 풍성하게 지급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관으로 뚝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선교사님 500명에게 150만 원씩 매월 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달려오십시오!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웃고, 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어 봅시다.



선교연금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후원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은 선교사 연금시스템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Mission - 사명

파송 선교사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Vision - 목표

후원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연금후원은 영적인 사역이며 기독교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Core Value - 핵심 가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협력 관계 형성
시대 변화에 맞춘 합동 선교 & 협력 선교 플랫폼
다양한 선교방식의 소통과 연대의 창구 역할

🔥 Core Competency - 핵심 역량

하베스트 대학을 통한 후원자 교육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원 문화 정착

적립된 연금으로 교회 건축 대출금 전액 상환 지원

지원받은 교회는 월금만 선교사 연금시스템에 상환

지원받은 교회는 은행에 내던 이자를 어린이 청소년 전도에 사용
지원받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연금에 월 10,000원 후원으로 헌금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연금 가입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산하에서 운영하는 "목회자·선교사 연금시스템"은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사명자들의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역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역을 중단하거나 불안한 노후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통해,

🏠 끝까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 교회 헌금의 흐름도 건강하게 바뀌,

📄 더 많은 복음 사역이 가능해 집니다.

성경 푸드아트테라피 강좌

📅 10월 10일 · 14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양재

성경말씀과 아트치료의 만남
함께하는 은혜의 창작 시간



👥 가입 대상은요?

만 70세 이하의 목회자와 선교사
월 1만 원 이상 후원 가능한 목회자와 선교사

하베스트 연장교육원 강좌 10과목 이상 수강 (가입 후 수강 가능)

※ 배우자도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비와 연금 지급 방식

가입비 : 최초 1회 10만 원을 납입하며, 이는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으로 전환됩니다.

연금 지급 : 만 70세부터 120개월(10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수령 시 자동 탈퇴됩니다.

연금 구성 : 회원이 납입한 금액에 후원금 분배와 열방몰 사업 수익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 후원금은 어떻게 모이나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원금이 조성됩니다.

교회 재정 및 선교회의 후원
성도들의 월 1만원 이상 자발적 후원

열방몰 쇼핑수입 및 열방몰 입점
기업의 후원

아로마테라피협회의 강의사업 후원

연금 탈퇴자의 적립금 공동 분배
고액 후원, 유언 후원, 특별 후원

👤 왜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후원 분배금 증가 : 은퇴금 누적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후원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연금 수령 : 동역자가 많아질수록 더 풍성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동반자 : 사역 중에도, 은퇴 후에도 든든한 사역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 투명한 운영 원칙

연금보장원칙 : 후원금으로 조성되어 개인에게 확정된 연금은 반드시 지급합니다.

교회 건축비 지원: 적립된 연금

으로 교회의 건축비 전액을 상환
지원하며, 담보를 이관받아 안전
성을 확보합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 : 적립된 연금
지급금은 이율이 높은 단기 적금
이나 국가 발행 국채에 보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공정한 분배 : 발생한 이자 수입
은 연금회원에게 공정하게 분배
됩니다.

노후연금의 정책

후원금 공동 분배 : 여러 경로로
모금된 후원금은 회원들에게 공
정하게 분배됩니다.

중도 반환 불가 : 노후 연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에 반환되
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사망 시 : 중도 탈퇴
하거나 연금지급 중 조기 사망
시 적립된 연금은 다른 회원들에
게 공동으로 분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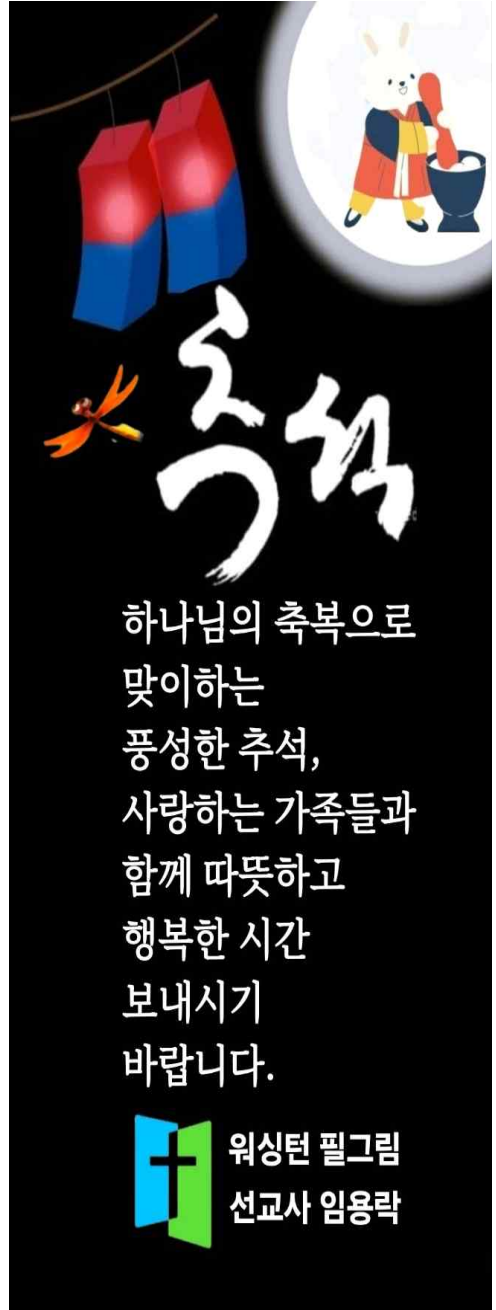
가입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사) 하베스트
국제 사역원에 문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여 사역의 마지

막까지 든든하게 함께하십시오.

"노후가 아닌, 사명의 연장입니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이하는
풍성한 추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필그림
선교사 임용락

☞ 연금 가입안내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은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금 가입 방법

하베스트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입금 시 '이름 + 은퇴금' (예: 이주만은퇴금)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불입 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은퇴연금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조성됩니다.

개인 불입 : 사역자 개인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합니다.

교회 적립 : 교회가 재정에서 사역자를 위한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매월 적립합니다.

후원자 지정 후원 : 후원자가 특정 사역자를 지정하여 일시불 또는 매월 후원합니다.

이렇게 은퇴금은 개인의 노력과 교회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며, 후원금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 은퇴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은퇴금은 원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나 투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도 반환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때 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액 반환 시에는 연금회원 자격이 자동 탈퇴됩니다.

지급 시기 : 만 70세가 되는 해 1월에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 : 은퇴 시 은퇴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불입한 원금 외에 10년간 후원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반환 사유와 지급 기준

사역 중단 시 : 불입된 금액만 반환되며, 후원금은 다른 회원들에게 공동 분배됩니다.

은퇴 전 사망 시 : 불입금과 후원금 전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사망 시 : 남은 연금과 후원금 모두 다른 회원에게 공동 분배됩니다.

자녀 학자금/결혼 : 납입금액의 최대 80%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이 줄어들면 이후 후원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은퇴금 활용의 좋은 점

사역자의 장기 사역 지원 : 노후 걱정 없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장기적인 사명 감당에 기여합니다.

안정성 유지 : 교회를 옮겨도 은퇴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불입하는 주체만 변경됩니다.

갈등 해소 : 목회자나 선교사 은퇴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장합니다.



● 은퇴연금 가입상담

주만장로 : 010-3418-9169

후원안내

사다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의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후원금으로,

2) 하베스트대학의 다양한 강의 개설로 인한 수강료가 후원금으로,

3) 하베스트대학의 교수님들이 재능기부하여 강사료가 후원금으로,

4) 아로마테라피협회의 성경속 향유와 조향사의 수강료 전액이 후원금으로,

5) 선교를 실천하는 기업에서 증받은 상품이 후원금으로,

6) 열방물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 안내

파송교회를 위한 선교사 연금 활용 방법

✦ 현재 대부분의 파송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놓치고 계시지 않나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 형식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은퇴 후

☞ 생활 안정이 어렵고

☞ 기도 사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 활용하기!

매월 적립

교회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

연금 형식

은퇴 시 선교사님께

연금 형식으로 지급

후원

노후에도 기도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의 3가지 핵심 장점

👛 교회의 재정적 부담 분산

선교사님의 안정된 은퇴 생활 보장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역 동역 가능

🔊 지금 바로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동역해 주세요!

문의 : 주만장로

010-3418-9169



🔔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 참여 안내

✓ 성도님들의 선교사 은퇴 후 원,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작은 헌신으로 큰 일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 참여

💖 월 10,000원부터 시작 가능

누구나, 작은 정성으로 선교사님의 은퇴 후 삶을 돕는 지속 가능하고 실제적인 후원 방법입니다.

✓ 어떻게 후원이 이루어지나요?

후원자님이 선교사님 개인을 후원하는 방법

하나은행 907-910008-71605

계좌로 입금하실 때

노후연금을 후원할 때

후원자명 + 항목 = 이성상연금

은퇴금을 후원할 때

후원자명 + 항목 = 이성상은퇴

이렇게 작성하여 입금하시면 지정하신 선교사님의 개인 연금에 적립이 됩니다.

성도님의 후원금은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에 적립되어 선교사님의 은퇴 이후, 생활비와 사역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실천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월 1만원의 후원이 선교사님의 노후를 밝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귀한 참여가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를 맺습니다.



'욥 키푸르(대속죄일)'



박일승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10월 1일인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즉 절기'에 의하면 '욥 키푸르(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엄중하게 지키는 날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레 23:27)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는 25시간을 금식하는 형태로 지킵니다.

종교인들은 성전 제사가 불가능

하기에, 닭을 잡아 머리 위로 세 번 돌리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머리 위로 돌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르기에 죄에서의 구원과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은 두려움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침 새벽 묵상 시간에 로마서 12:1-8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1-11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제시한 후, 12장 실천편으로 들어가며 하는 첫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자라면, 마땅히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일

주일의 한 번의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전 시간에 걸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대속죄일에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구속의 역사 속에 그리고 나 개인을 향한 긍휼에 대하여", "나는 나의 가정, 일터, 공동체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온의 대로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박일승 교수
 히브리대학교
 이스라엘연구·이스라엘교육원 원장
 (전) 한미성경연구원 소·중·고 Israel Bible Study 교육원 교육장
 매주 화·목 오후 8시 (한국시간) 6회 완강
 12월 7일(화) 첫 강의

한가위를 맞으며



불꽃 신재성

저 하늘 둥근 달빛 아래
마음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
황금빛 곡식은 고개 숙이고
들녘 바람은 감사를 노래한다

멀리 떠난 이도
그리운 얼굴도
달빛은 다 품어내어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 비추어
기쁨은 넘치고
감사가 깊어진다

한가위라
풍성한 열매의 절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어라



하베스트국제사역원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하베스트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치앙마이 센터 | 하베스트 연금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은 한국, 태국,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다.

하베스트는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영성과 품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 1. **하베스트 대학교**
- ◆ 2. **선교사 연장교육원**
- ◆ 3. **치앙마이 선교센터**
- ◆ 4. **선교사 연금 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베스트는 늘 선교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VERIFICATION OF EXEMPTION

July 31, 2025

Mi Seon Eur
Harvest University
2471 Foxdale Avenue
La Habra, CA 90631

RE: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Exempt Status – Application Number 38262

INSTITUTION: Harvest University

BASIS FOR EXEMPTION: Religious - California Education Code (CEC) section 94874(e)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ureau) has completed the review of your Institution's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Exempt Status pursuant to the California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Act of 2009 (Act) based on the application received on June 13, 2025.

The application demonstrates that Harvest University has met the qualifications for exemption from regulation under the Act, pursuant to California Education Code (CEC) section 94874(e): *"An institution owned, controlled, and operated and maintain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lawfully operating as a nonprofit religious corporation..."*

Pursuant to CEC §94874.7, this verification of exemption shall remain valid until July 31, 2027, as long as the institution maintains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exemption.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will deem the institution ineligible for this exemption:

- the institution offers degrees or diplomas outside the scope of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the church, religious denominat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 the institution offers degrees in any area of physical science;
- the institution is no longer a religious nonprofit organization;
- the institution is approved to participate in veterans' financial aid programs pursuant to Section 21.4253 of Title 3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any other factor exists that would render the institution ineligible for an exemption under the CEC section 94874(e).

Additionally, exempt institutions shall comply with CEC §94927.5 regarding the retention of student records and transcripts and their submission to the Bureau prior to closing.

If you require additional assistance on this matter, please contact Nicholas Robinson at (279) 895-6082.

Sincerely,

Nicholas Robinson

NICHOLAS ROBINSON
Licensing Analyst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
P.O. Box 2508
Cincinnati, OH 45201

HARVEST UNIVERSITY
2471 FOXDALE AVE
LA HABRA, CA 90631

Date:
09/19/2025
Employer ID number:
39-4079535
Person to contact:
Name: M Collins
ID number: 3364079
Telephone: 877-829-5500
Accounting period ending:
December 31
Public charity status:
509(a)(2)
Form 990 / 990-EZ / 990-N required:
Yes
Effective date of exemption:
May 18, 2025
Contribution deductibility:
Yes
Addendum applies:
No
DLN:
26053653005725

Dear Applicant:

We're pleased to tell you we determined you're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under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501(c)(3). Donors can deduct contributions they make to you under IRC Section 170. You're also qualified to receive tax deductible bequests, devises, transfers or gifts under Section 2055, 2106, or 2522. This letter could help resolve questions on your exempt status. Please keep it for your records.

Organizations exempt under IRC Section 501(c)(3) are further classified as either public charities or private foundations. We determined you're a public charity under the IRC Section lis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If we indica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that you're required to file Form 990/990-EZ/990-N, our records show you're required to file an annual information return (Form 990 or Form 990-EZ) or electronic notice (Form 990-N, the e-Postcard). If you don't file a required return or notic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your exempt status will be automatically revoked.

If we indica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that an addendum applies, the enclosed addendum is an integral part of this letter.

For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responsibilities as a tax-exempt organization, go to www.irs.gov/charities. Enter "4221-PC" in the search bar to view Publication 4221-PC, Compliance Guide for 501(c)(3) Public Charities, which describes your recordkeeping, 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Sincerely,

Stephen A. Martin
Director, Exempt Organizations
Rulings and Agreements

Letter 947 (Rev. 2-2020)
Catalog Number 35152P

HARVEST JOURNAL

하베스트 학술지 편집 위원

부편집장 김규동 박사

편집위원 조동욱 박사

김재수 박사

최하영 박사

김해규 박사

유정남 박사

김종일 박사

손승호 박사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TIMES

2025년 10월 1일 제13호

발행인 이성상 박사

편집인 나주아 박사

